

척사대회가 있던 날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해 첫 마을 행사를 치렀다. 정월대보름 날 마을 척사대회(웃놀이)다. 회관 마당에 웃놀이판을 위한 돛자리 몇개가 펼쳐지고, 한켠에선 커다란 가마솥도 내걸려 그런대로 잔치 분위기가 물씬 했다. 솔에선 소머리를 삶는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졌다. 어느덧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막걸리잔이 오가고, 웃놀이판이 열리면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가득 했다. 척사대회는 이사오던 이십수년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놀이판이 무리악을 즈음 어떤 이들이 끼어들었다. 우리 지역구의 정치인이다. 이번 총선에 나갈, 각 당의 후보들이 찾아왔다. 어떤 정치인은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인은 괜시리 주민들을 모아 연설을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도 있고, 어떤 정치인은 막걸리판에 끼여 자기도 한잔 걸치며 특별한 인상을 남기려 애썼다. 그리고는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노라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질거라고 믿는 이는 없다.

그래서 올해 척사대회는 여느 해와 다르게 방문객이 많고 어수선했다. 하지만 옛날처럼 선물이나 돈봉투를 나눠주고 가는 후보가 없는게 다행이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 한 정당의 당원이었던 이장이 나서서 봉투를 돌렸다. 그것도 사람을 골라서. 당시 집권당을 지지해달라는 이장과 심하게 다투다. '더러운 대표행위를 하지마라'고. 다툼 이후 이장과는 서먹해졌다. 내가 이장과 다투었다는 소문이 돌고 봉투를 거부한 이들과는 친해지고 봉투를 받아든 이들과는 멀친해진 정도랄까.

민주화를 표방한 대통령이 오고 돈봉투는 없어졌다. 또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막걸리판도, 선물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 대부분 뇌물로 감옥가고 현 국회의원도 입건돼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판이다. 이것이 수도권 한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면 믿을까.

우리마을에는 두가지 규제가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족쇄는 이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장애로 작용, 해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다. 이곳의 지천은 곤지암천-경안천을 지나 팔당과 연결돼 서울의 물 공급 원천이 되고 있다. 소머리국밥으로 유명한 곤지암은 황성처럼 한우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나 대규모 축사를 짓지 못한다. 또한 분원리 이전의 왕실 백자 가마터가 남아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런 규제는숙원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내놓고 요구하는 경우를 본적은 없다. 그런데도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단골로 공약하고 아무 것도 풀지 못하는, 아주 묘한 평행선을 유지한다.

우리마을에는 3·1운동 당시 '해방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민족지도자 33인 중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 서거했다. 신익희 선생과 더불어 우리 지역이 자랑하는 위인이지만 두분 모두 별다른 기념사업 하나 없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곳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살지만 큰 활동을 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야당한다는 박해에 넌더리가 난다며. 그중에는 학교에 가서도 혼난 적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독립운동가를 묻고, 어느 한때의 척사대회를 즐겨오고 있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밀실에서 뽑지 말길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엔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 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환 전략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전략공관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지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관리위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1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려야 실수가 없다. **48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이다. **60년생** 아재의 이웃이 오늘은 배운양덕할 수. **72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84년생** 오늘보다 높은 고지를 향해볼 것.
- 37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9년생** 가족의 위로가 그리운 날.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73년생** 강남에서 걱정이 해소되고 강북에서 마음이 즐겁다. **85년생** 오아발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마라.
- 38년생** 웃으며 병 주고 약 주는 시늬가 밍시다. **50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날. **62년생** 해 오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74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해야 결과가 좋다. **86년생** 아직도 귀중한 시간이 많이 있다.
- 39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1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 **63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75년생** 부지런하니 늘 기쁨이 공존하여 감사. **87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기쁘다는 뜻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40년생** 기뻐만사성이니 가정의 행복을 먼저 챙기자. **52년생** 오늘의 주인공이니 무슨 일에도 참여. **64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생** 남의 흉을 감춰주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88년생** 몸은 수고로워도 이득은 발생.
- 41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53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65년생** 흰색 옷을 입어보라 기쁜 소식이 온다. **77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이다. **89년생** 아침부터 산행을 가보라.
- 4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을 헤게 된다. **54년생** 집이나 땅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기쁘다. **66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8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보라. **90년생** 게으름은 몸을 더욱 수고롭게 만든다.
- 43년생** 이익되는 관계만 맺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55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에게도 이익. **67년생** 남편이 소중하니 외출보다는 집안일이 우선. **79년생** 삶이 고단 할지라도 내일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91년생** 자랑보다는 겸손을.
- 44년생** 오늘 이사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56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68년생** 양다리 걸치다 양쪽을 다 놓친다. **80년생** 스승님과 협업이 도움을 주니 좋다. **92년생** 남의 단점을 보려 하면 자신이 피곤.
- 45년생** 화를 일삼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생명 단축. **57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69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81년생** 앞지른 물은 담지 못한다. **9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 46년생** 좋은 운은 이간질함으로써 달아난다. **58년생** 타인의 실수를 보듬어 주어야 할 때. **70년생** 가족 간에 공과사를 다룰 일이 생긴다. **82년생** 아니 뎀 꿀떡에 연기 날 수가. **94년생** 누군가 끼어들어도 차를 운전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 47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은 목욕이 최고. **59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95년생** 내 이익을 위해 남의 신세를 지려 하지 말 것.

김상회의四季

오행 따라 인간관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람의 천성이나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르기에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한다. 오행五行을 보면 그 차이를 보통은 알 수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이 다르니 특성이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다. 오행의 구성 따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여지없이 충돌이 생긴다.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중 교육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가르침을 받고 달라졌을까. 과연? 상사는 오행 중 화가 많으면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좋으며 성격이 급하다. 자기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므로 충돌이 잦은 편이다. 목이 많은 사주는 누가 시킬 때보다 스스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때 성과가 좋다.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 내는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특성이 다른 사람은 서로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목 사주 부하직원이 화 사주 상사의 방식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의 가르침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생년월일을 물어서 사주팔자의 오행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다.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면 조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낫다. 무언가를 꼭 알려주고 싶다면 업무를 통해서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2	9	1			3	
5	3				7		6	
					5			8
	5	1						2
3								5
9						4	1	
1			2					
	7	6					8	3
6			8	4	1			

7	1	8	9	8	7	9	6	2
9	7	2	1	6	8	8	7	7
2	8	6	9	8	7	7	9	1
9	6	7	8	2	1	8	9	7
7	9	1	6	7	8	2	8	9
8	2	8	7	9	9	1	7	6
1	7	9	8	6	2	7	7	8
6	9	7	1	9	8	7	2	8
8	8	2	7	7	9	6	1	9